

# 독자가 위대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출판 시장

글\_방민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학비평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하나는 박민규의 장편소설 《핑퐁》에 관한 것이다. 박민규는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후 문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사왔다. 필자도 이 작가가 역량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많은 작가라고 생각한다. 세계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작가만큼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는 작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 작가의 신작 소설 《핑퐁》을 읽고 난 소감은 아주 실망스럽다. 알레고리나 상징을 구사하는 소설은 이야기의 뼈대가 굵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인데 이 작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알레고리와 상징은 이야기의 전통, 알레고리와 상징의 전통에서 오는 의미의 울림을 함축해야 하는 법이다. 이 작품은 이 점에서도 전혀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출판사와 비평가들과 시장은 《핑퐁》에 주목해 달라고 열심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독자들 일부도 이에 호응한다. 왜일까? 독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작가를 원하지만 한국문학은 그런 작가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학 출판사들은 빈곤한 작가층을 자원으로 삼아서 시장의 논리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민규 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젊은 작가 김애란의 창작집 《달려라 아비》에 관한 것이다. 이 작가는 데뷔한 후 짧은 시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아버지애 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보여주었다든가 세상에 대한 비판 없이 자기 긍정을 보여주는 작가라든가 하는 선전적 비평들이 만연했다. 그렇지만 표제작인 《달려라 아비》나 《스카이

콩콩》 같은 작품들은 이 작가가 아직 성장 중인 작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무엇보다 도대체가 이런 아버지는 우리 문학에 없었다는 식의 평가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새롭다는 것은 단지 새롭다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완미한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깊은 감동이 라는 것이 있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그런 수준의 감동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작가는 자기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또 문단은 그가 재능이 있느니만큼 사색과 고민과 수련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출판계 및 몇몇 비평가들은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모양이다. 왜일까. 작가를 보는 시선이 현저히 협소하기 때문이다. 보는 작가만 보고 보이지 않는 작가는 찾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작가들 가운데에는 김애란 말고도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 받아야 할 작품은 김재영의 《코끼리》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국적이 네팔이다. 주인공은 한 소년인데 어머니는 조선족이다. 한 가구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년의 시각에서 풀어나간 것인데 최근에 접한 작품들 가운데 단연 수작이다. 이 작품은 단지 사회성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체나 구성면에서 손색이 없다. 말하자면 진정으로 새로운 아버지의 존재를 보여준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유배 내려온 코끼리 같은 아버지, 고향인 네팔에서 떠나와 돼지막사로 쓰던 판잣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말이다. 소년은 자기 피부 빛을 희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다. 아버지의 생일 음식을 준비하는 소년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비평가와 독자들은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 읽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요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한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외국 소설들을 밀어내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 떠들썩한 사건이 될 정도로 한국 작가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독자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IMF 이후 시장경제 논리가 고도로 강조되고 경쟁 제일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적응되고 또 그러한 시대적 풍토 속에서 성장한 독자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시각과 두뇌를 열심히 작동시켜야 하는 책보다는 가볍고 기호에 맞는 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시장적으로 성장한 경제적 힘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가진 독자들을 창출해 냈다. 그들은 더 잘게 세분되어 있고 그만큼 더 다양한 상품을 요구한다. 한국문학 시장이 외국소설, 특히 일본소설에 잠식된 모습을 보이게 된 주요 원인은 이러한 수요층의 변화 때문이다. 한국 문단은 가벼움과 감각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지극히 다양해진 수요를 만족시켜 줄 작가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유형이나 숫자 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 새로운 타입의 작가들을 발견, '육성'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한편으로 출판사들은 시장 경제 논리라는 색안경을 벗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덮이 되어, 새로운 작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측면이 있다. 이런 작가는

새롭고 독자들이 잘 사줄 것이라는 선입견, 그 미신 같은 믿음이 문학 출판사들과 비평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집단과 사람들은 최근 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독자들을 이상시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작가를 내놓아야 하는지, 어떤 작가를 내놓아서 안 되는지 판단하려고 든다. 어느 면에서는 과학적인 접근법이나 엄정한 비평적 식견에 따라서 작가를 선택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한국의 우수한 문학출판사들은 그 '많은' 작가들 가운데 유독 몇몇 작가들만을 가지고 열심히 줄다리를 하는 것일까. 과학과 비평이 드디어 일치된 판단을 이끌어낸 까닭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 아래서 좋은 작가들이 전혀 조명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김재영 씨나 정지아 씨나 이나미 씨 같은 작가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추천**